

5/18(수) 에스더 묵상 11

에스더 7:1-1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두번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악한 흥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편으로 확실히 돌아서게 하신 다음 이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만은 결국 그가 만든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는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청원

에스더가 준비한 두번째 잔치에서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게 됩니다(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첫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왕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첫번째 잔치에서 소원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에스더의 신중함을 엿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되면서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첫번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다 백성을 위하여 그 사이에 모르드개의 숨은 공적을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세는 에스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소신을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3-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4절의 마지막 말씀을 새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악한 일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 일로 하만의 정체와 악한 계획이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는 이 또한 ‘죽으면 죽이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왕이 에스더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하만의 편을 들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도와주셨고 하만은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만의 몰락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며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 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간청하는 장면을 본 왕은 그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도 그런 것이 본문에 나온 걸상은 영어성경에 보면 왕후의 간이 침대로도 사용하는 쇼파(couch)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격노에 곁에 있던 신하들은 결국 하만을 잡게 되고 그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준비한 높이가 오십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 버리게 됩니다(9-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높이가 오십 규빗은 약 23미터를 뜻하는 것으로 하만이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반드시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는 궁극적으로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시 147: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높디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잠 3:34,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과 달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더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겸손과 신중함을 겸비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르드개를 죽이고자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오십 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준비했지만 결국 그 장대에 자신이 죽게 됩니다. 에스더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도 겸손할 때가 있고 동시에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하만 앞에서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용기를 발휘할 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지혜 그리고 용기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올해 4/6 일 국제이주기구가 발행한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710 만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피난민과 이들을 돕고 있는 구호 단체들과 선교사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